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51, No. 4

저경력 사서교사의 도서관활용수업에 대한 실천적 지식 형성 과정 탐색

A Study on the Practical Knowledge of Low-Experienced Teacher Librarian in Library Based Instruction

이 승 민(Seung-Min Lee)*

〈 목 차 〉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Ⅴ. 결론 및 제언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저경력 사서교사의 도서관활용수업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는 교직 경력 3년 차 이하의 신규 사서교사 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에서 실천적 지식의 영역인 교사 자신에 대한 지식과 교수・학습에 대한 지식을 중점을 두고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교사에 대한 교사 자신에 대한 지식은 학생과 교사를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으로 이끌어 가는 리더십 있는 교사였다. 둘째, 사서교사에 대한 교사 자신에 대한 실천적 지식은 예비교원양성과정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형성되었으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상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일어나고 있었다. 셋째, 도서관활용수업에 대한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지식은 도서관협력수업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수업 방법을 배우고 익히며 현장에 적용하고 있었다. 넷째, 도서관활용수업의 교・학습 방법에 대한 지식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교원양성과정과 교육실습활동이 학교 현장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변화해야 하고 도서관활용수업에 대한 수업 읽기와 수업 분석이 지속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도서관활용수업, 실제적 지식, 저경력, 사서교사, 교사상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ocess of forming practical knowledge about library-based instruction of low-experienced teacher librarians. The study conducted interviews with six teacher librarians with less than three years of teaching experience. The analysis of the data collected focused on the teachers' self-knowledge and instructional knowledge, which are in the areas of practical knowledg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elf-knowledge of teacher librarians was a teacher with leadership, who led students and teachers to reading education and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Second, the self-knowledge of teacher librarians was most concretely formed in the process of pre-service teacher training, and the reflection on the teacher's image was taking place in the school field. Third, the knowledge of the instructional knowledge for library-based instruction was focused on library collaborative instruction, and various teaching methods were being learned and applied in school field. Fourth,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instructional knowledge of library-based instruction among teacher librarians. Through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the teacher training course and educational practicum activities should be changed by reflecting the contents of the actual school field, and the analysis of library-based instruction should be continued.

KEYWORDS : Library Based Instruction(LBI), Practical Knowledge, Teacher Librarian, Teacher's Image

* 홍천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smcan2000@naver.com / ISNI 0000 0004 8011 0970)

• 논문접수: 2020년 11월 16일 • 최초심사: 2020년 11월 26일 • 게재확정: 2020년 12월 7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4), 1-24, 2020. http://dx.doi.org/10.16981/kliss.51.4.202012.1

www.kci.go.kr

Ⅰ. 서 론

교육의 수준은 교사의 수준을 넘을 수 없고, 학교도서관 역시 사서교사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 학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는 제공의 주체인 사서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도서관의 핵심 영역인 '교육활동' 영역은 사서교사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수업에 대한 사서교사 개인의 지식과 신념은 매우 중요하다.

수업 활동은 학교 및 교과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과 교사가 교육 내용을 토대로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교사는 수업을 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식을 교과의 교수·학습 목표에 맞게 하나의 지식으로 재구성하고, 재구성된 지식은 교사가 가진 신념, 가치 등의 내적인 요소와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결합하여 수업에 적용된다.

도서관활용수업 또한 마찬가지다. 사서교사는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키기 위하여 타 교과의 교수 목표나 학생들이 배웠으면 좋을 내용, 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토대로 독립적으로 또는 협력적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도서관활용수업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수업의 과정에서 있어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형태의 수업을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이며, 교과교사와 사서교사의 협력 수업은 도서관활용수업에 포함되는 개념이다(이병기 2006). 도서관활용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도서관 수업 모형, 교과서 활용 방안, 자료 개발, 교육과정, 도서관활용수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등의 여러 방안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제시되었다(박주현, 이명규 2015; 소병문, 송기호 2020; 이승민 2020).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교육 활동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진행되어온 것들이며, 교수·학습 방법 개선과 교수 활동을 위한 체제 마련 등 거시적 관점에서 도서관활용수업을 활성화하는 위한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초등, 유아, 특수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분야의 연구들은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교육 활동의 주체인 교사 개인의 신념, 지식, 이론 등을 강조하고 있다(노경주 2009; 선민희, 안경자 2019; 윤지수, 임경원 2020). 그 이유는 교사들이 가진 신념, 지식, 이론 등에 대한 교사의 인지 과정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교사의 생각, 신념, 지식, 태도 등에 따라 교육과정 구성,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이 달라진다. 특정 교사의 교육 활동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 경험에서 쌓인 개인적 신념 체계와 초, 중, 고,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쌓은 교직 경험에서 정립된 실제적 신념 체계의 영향을 받고, 이러한 신념 체계는 교사가 가진 독특한 자신만의 교사 이론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노경주 2009). 이는 교사의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할 수 있으며, 실천적 지식은 교사가 교육 활동에서 개인이 가진 교육 내용에 대한 지식을 교사의 가치관 또는 신념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

www.kci.go.kr

상황에 맞도록 종합하고 재구성한 지식을 의미한다(Elbaz 1981).

도서관활용수업에 대한 사서교사의 실천적 지식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실천적 지식을 구성하는 5가지의 내용 중 교사 자신에 대한 지식(knowldege of self), 교수・학습 지식(knowledge of instruction)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으로는 3년차 이하의 저경력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저경력 교사를 선정한 이유는 대학에서 배운 내용과 실제 현장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수업 진행에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를 겪으며 자신만의 실천적 지식을 형성해가는 시기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활용수업의 영역을 도서관협력수업을 포함하여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업 활동으로 포괄하여 규정하였다. 저경력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전반적으로 톺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경력 사서교사들의 실제적 지식과 그 구성 과정을 파악하는 것은 도서관활용수업이라는 현상과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서교사상과 성공적인 도서관활용수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출발점과 의미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서교사의 전문성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 운영을 기반으로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협력적으로 또는 사서교사가 개별적으로 수업을 실시하는 교육의 주체이다. AASL(2010)은 사서교사의 역할로 교사, 교수 파트너, 정보 전문가, 프로그램 관리자, 리더의 5가지 역할을 제시하였고, IFLA(2015)은 사서교사의 역할로 교수자, 경영자, 리더십 및 협력, 지역으로 참여, 도서관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증진을 들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이 학습에 대한 영향을 토대로 탐구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기민진과 송기호(2013)는 사서교사와 국어교사가 공동으로 수업계획, 수업전개, 수업평가를 통해 국어 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을 증진하고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얻었으며, 사서교사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협력 수업 주제를 분석하고 교과 연계 자료를 선정하는 등의 교육과정 기반의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조미아(2014)는 사서교사와 중국어 교사와 도서관에서 진행한 협력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관련 성취욕, 학습 실행력, 학습에 대한 흥미가 향상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때 협력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서교사는 수업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자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서행민과 이병기

www.kci.go.kr

(2015)는 총 15차시에 걸쳐 도서관활용수업을 통한 미래자서전쓰기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의 변화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도서관활용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유발, 수업참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와의 협력적 진로교육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오지민과 김기영(2018)은 사서교사가 협동학습법을 적용한 저작권 수업을 진행할 때 저작권 지식과 태도에 대한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고, 저작권 지식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수업의 목표라면 다양한 협동학습법을 적용한 저작권 수업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사서교사의 수업 전문성은 도서관활용수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교과교사와의 협력 수업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속적인 도서관활용수업에 대한 진행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연구를 통해 사서교사가 학교에서 수업전문성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준(2009)은 사서교사 양성과정에서 정보관리와 관련된 전문성에 중점을 두는 반면, 현장에서는 학교도서관 교육 및 경영에 관련된 전문성을 중시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황혜란(2010)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을 사서교사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학교 교육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철저한 가치관과 교육관을 정립하고 끊임없이 전문성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정종기(2009)는 도서관활용수업 진행을 위한 정보 부족, 지원체계 결여, 수업 시간 부족, 소양부족, 동기부족을 원인으로 제시하였으며, 송기호(2014)는 리더십 부족, 준비 시간 부족, 업무량 증가 등이 사서교사가 도서관활용수업을 진행하는 한계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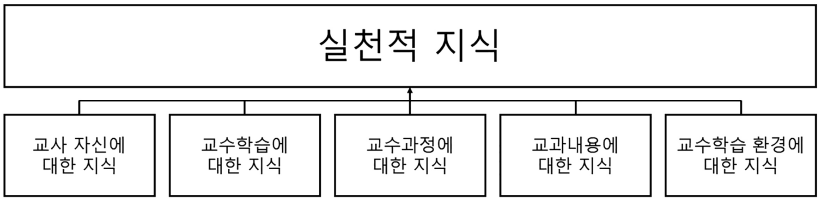
2. 실천적 지식

모든 사람들은 정도와 엄밀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삶의 경험의 의미와 성격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재해석한다. 마찬가지로 교사는 규정된 이론이나 개발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그대로 수업에 적용하여 실천하지 않는다. 즉,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자신이 배웠던 이론적 지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상황과 그동안에 배웠던 이론적 지식과 자신의 신념 및 교수・학습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자신이 재구성한 지식을 근거로 한다는 것이다(김자영, 김정효 2003). 교사의 실천적 지식에 대한 연구는 Elbaz(1980)의 박사 학위 논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고등학교 영어교사의 사례 연구를 통해, 교수・학습 활동의 모습을 결정하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복잡하고 실제적으로 지향된 일련의 이해 체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교수・학습에 대한 교사의 개인적인 지식을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이라고 명칭하였다.

www.kci.go.kr

실천적 지식이 형성되는 배경과 이유는 '정향(orientation)'이라는 용어로 나타난다. 이는 크게 교사의 외적 환경의 영향에서 나타난 상황적 정향(situational orientation: 실천적 지식이 형성되는 상황 맥락에 따라 방향성을 가짐), 이론적 정향(theoretical orientation: 실천적 지식을 형성할 때 영향을 주는 교사의 이론적 요인), 사회적 정향(social orientation; 실천적 지식 형성 시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과 교사지식의 내적 형성 요인에 따라 나타난 개인적 정향(personal orientation: 실천적 지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교사 개인의 감정, 목적, 가치, 신념 등과 관계되어 실천적 지식의 정의적 영역을 형성하는 데 중요), 경험적 정향(experiential orientation: 실천적 지식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주는 교수 경험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홍미화 2005).

교사의 실천적 지식의 내용은 교사 개인에 대한 지식, 교수·학습에 대한 지식,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 교수·학습 환경에 대한 지식 등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Elbaz 1981),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실천적 지식의 내용

첫째, 교사 개인에 대한 지식(self knowledge)은 전문가로서 교사인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자신이 생각하는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둘째, 교수·학습에 대한 지식(instructional knowledge)은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셋째,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curriculum knowledge)은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과정, 방식 그리고 교과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관련 지식을 의미한다. 넷째,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subject matter knowledge)은 교사가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가르칠 내용에 대한 지식과 이에 대한 가치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섯째, 교수·학습 환경에 대한 지식(milleu of school knowledge)은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및 교실에 대한 사회, 문화, 정치 및 지리적 환경 등에 대한 지식이다.

교사가 가지고 있는 실천적 지식은 하나의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수업 상황에서 지식을 일반성의 정도에 따라 구조화하여 나타난다. Elbaz(1981)는 교사의 실천적 지식을 구체성과 일반성의 정도에 따라 전략, 원리, 이미지의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였다(김자영, 김정효 2003). 먼저 전략(rule)이란 가장 구체적인 특성을 지니며, 수업 상황에 따라 교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www.kci.go.kr

지 규정하는 가장 분명한 지침으로 나타나며 '정보활용수업에서 학생들이 자료를 제작할 경우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약속하자' 등의 명확한 형태로 드러난다. 둘째로 원리(principle)는 교사 개인의 경험에서 유래하며 숙의적 반성에 의한 것이다. 이는 '도서관활용수업은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을 향상하는 데 유용하다'와 같이 교수행위에 대한 교사의 목적의식이나 신념이 나타나는 진술로 나타나며, 전략에 비해 넓고 포괄적으로 드러난다. 셋째로 이미지(image)는 가장 일반적이며 포괄적인 지식으로 교사의 가치, 감정, 신념 등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훌륭한 사서교사는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와 같이 은유적이며 함축적인 표현으로 진술된다.

서윤희(2015)는 예비유아교사가 모의수업을 진행할 때 나타나는 실천적 지식을 분석하였고, 교사로서의 자아상, 교수방법, 교육과정, 교수・학습환경의 측면에서 예비교사들의 실천적 지식이 어떻게 형성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김영란(2017)은 독서교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고등학교 국어교사의 책읽기 수업에 대한 실천적 지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독서수업과 글쓰기 교육과정과 연계 방안,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의 모색을 제안하였다. 노경주(2018)는 초등교사의 실천적 지식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대학교 4학년 학생들과 경력 5년 시점의 교사의 실천적 지식을 분석하였고, 예비교사 양성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직 3년차 미만의 사서교사를 연구 참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총 6명(초등학교 2명, 중학교 2명, 고등학교 2명)을 선정하였다. Berliner(1998)에 따르면 교사 전문성의 발달 단계는 신규교사, 경험교사, 능력교사, 우수교사, 전문가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서교사 1급 자격 연수를 받지 않은 교육 경력 3년 이하의 신규 교사를 대상으로 도서관활용수업에 대한 지식 형성 과정을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자가 설명하는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였고,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동의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참여자의 비밀보장, 익명성 보장 등을 강조하였다. 참여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가명이나 기호로 대치한다는 사항과 익명성이 보장된 자료만을 분석에 사용한다는 것을 공지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과 해석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성원의 검토(member checking)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인터뷰 과정에서 진행한 말과 행위에 대해 연구자가 요약하고 해석한 것을 확인받았다. 연구 참여자의 기본 신상은 〈표 1〉과 같다.

www.kci.go.kr

〈표 1〉 연구 참여자

이름	학교운영	근무지역	학교급	학교급	경력	수업 학년[1]
A교사	공립	A지역	초	36학급	2년차	1~6학년
B교사	공립	B지역	초	38학급	1년차	1~6학년
C교사	공립	A지역	중	20학급	1년차	1학년
D교사	공립	C지역	중	21학급	3년차	1~3학년
E교사	공립	A지역	고	22학급	3년차	1학년
F교사	공립	D지역	고	28학급	2년차	1,2학년

가. A교사

A교사는 2019년에 임용되었으며 초등학교 시절부터 교사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고등학교에서 만났던 사서교사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서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 교직이수과정을 통하여 사서교사가 되었고 발령 이후 수업과 관련한 다양한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6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 B교사

B 교사는 2020년에 신규 임용되었으며 임용이 되기 전 전문도서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다. 어렸을 적부터 사서교사가 되고 싶진 않았지만 사서교사 모집인원이 늘어나면서 교원 임용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저학년 학생들에겐 다양한 책을 경험하게 하고 고학년이 될수록 다양한 자료를 통한 정보활용교육을 진행하고 싶다는 목표를 설정한 열정을 가진 사서교사이다.

다. C교사

C교사는 2020년에 신규 임용된 사서교사로 어려서부터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및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서라는 직업의 꿈을 키워왔다. 고학년이 되면서 책을 읽을 시간도 많지 않고 성적도 생각한 만큼 나오지 않아 사서의 꿈을 접으려 했다. 하지만 학생들과 많이 소통하고 다양한 경험을 줄 수 있는 사서교사를 만나면서 사서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이 많고 다양한 교과 교사와 도서관협력수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는 꿈 많은 사서교사이다.

1) 사서교사는 학년에 상관없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학교 상황에 따라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교양활동 등에서 특정 시수를 학교 교육과정 내 편성하여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A와 B교사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주당 1시간 이상을 사서교사가 단독 또는 협력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C교사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단독 또는 협력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www.kci.go.kr

라. D교사

D교사는 2018년에 임용되었으며 교사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대학에 입학하였다. 이후 복수 전공을 통해 타 교과 교사 진학을 고민하다 사서교사가 되었다.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도서관을 이용한 교과 융합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자료를 찾아 더 나은 도서관활용수업을 만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마. E교사

E교사는 2018년에 임용된 사서교사로 어린 시절부터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고, 부모님과 도서관에 가는 것을 좋아하였다. 학창 시절 국어교사가 되고 싶었지만 고등학교 때 만난 두 분의 사서교사가 학교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사서교사로 진로를 결정하였다. 현재 학교에 함께 발령받은 동료 교사들과 함께 수업 모임을 만들어 학교도서관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서관활용수업을 훌륭히 해내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바. F교사

F교사는 2019년에 임용되었으며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했고 서점을 가는 것을 좋아했다.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과 책 읽기를 가르치는 독서지도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대학에 입학하며 사서가 되려 했으나 사서교사 임용 인원이 늘면서 사서교사에 대한 진로를 정하게 되었다. 책을 읽지 않는 학생들과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마음 깊은 사서교사이다.

2.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2020년 8월 24일부터~9월 25일까지 약 2달 동안 6명의 연구 참여자와 개별적인 면담을 3회 실시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기에 전화 통화를 통한 개별 면접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개별 면담은 1회 약 30~40분 정도 소요되었다. 1차 인터뷰는 사서교사가 된 이유, 임용 전에 생각했던 이상적인 사서교사의 모습, 임용 후에 생각하는 학교에서의 사서교사의 역할, 예비교사 과정(대학)에서 도서관활용수업에 대한 교육 경험, 성공적인 도서관활용수업을 위한 필요조건 등을 중심으로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실시하였다. 또한 2차 인터뷰는 1차 인터뷰 내용을 읽어보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알고 싶거나 부족한 연구 내용을 질문하였고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는 시점에서 인터뷰를 종료하였다.

면담 과정을 진행하는 전 과정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모두 녹음을 진행하였으며, 면담의 내용은 모두 전사(transcribe)하여 문서로 작성하였다.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가자의

www.kci.go.kr

표현 양식을 고려하여 필사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질문한 항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 질문 항목

개별 심층 면접
- 문헌정보학과 진학 및 사서교사 진로 선택의 이유 - 이상적인 사서교사의 모습(역할) - 예비교사양성(대학) 과정에서 도서관활용수업 교육 경험 - 교육실습에서의 도서관활용수업 실행 경험 - 성공적인 도서관활용수업의 모습 - 도서관활용수업 진행 경험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1.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지식

가. 사서교사에 대한 지식: 학생과 소통하는 따뜻한 교사

학생과 소통하는 것은 학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가 수업을 시작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 저경력 사서교사들은 학창시절에 만난 사서교사(또는 사서)나 교사와의 원활한 관계 형성을 통하여 학생과 소통하는 사서교사를 지향하는 지식을 구성하고 있었다.

> “제가 처음부터 교사를 희망하게 된 이유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성장하면서 너무 좋은 교육적 경험을 많이 받았고, 학교에서 사서교사를 보면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서교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학교의 선생님들과 관계를 잘 형성해서 도서관 행사나 학생이나 선생님과 동아리운영을 하든… 뭘 하든 그런 것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그런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사서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 사서 선생님은 맨날 책만 읽고 토론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걸 하는… 약간 만능 엔터테이너 느낌?” (A교사)

> “학창시절에 OOO사서 선생님을 만나서 사서교사가 하고 싶었어요. 학생들과 소통도 많이 하고 재밌는 활동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사서를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만 들었는데 OOO선생님 보고 그런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C교사)

A, C교사의 경우 성장 과정에서 사제관계로 만나게 된 사서교사를 통해 사서교사의 존재와

www.kci.go.kr

역할에 대해 알게 되었고, 좋은 사서교사란 학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A교사의 경우 학교도서관에서 교사 간・학생 간 다양한 소통과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서교사를 통해, 자기 스스로도 좋은 관계를 형성하여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사서교사가 되고 싶다는 자아상을 구성하고 있었다. C교사 역시 학생과 소통하며 재미있는 활동을 하는 사서교사의 모습을 보며 자신 역시 그러한 교사가 되고 싶다는 이상적인 교사상을 만들고 있었다.

> "고등학교 때 만난 OOO사서 선생님의 따뜻한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학생 한명 한명 잘 챙겨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서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도서관이라는 곳이 외로운 학생들이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런 학생들에게도 뭐라고 해야 할까… 살펴봐 줄 수 있고, 관심을 가져 줄 수 있는 따뜻한 모습을 가진 사서교사가 되고 싶어요." (E교사)

E교사 역시 학창시절 만난 사서교사의 모습을 통해 자신이 지향하는 교사상을 구성하게 되었는데, 앞서 A, C교사와는 다르게 활동적인 측면보다 정서적인 측면을 좀 더 부각하여 교사상을 구성하고 있었다. 세 교사 모두 '소통'에 초점을 두었으나, A와 C교사는 소통을 통한 활동적 측면을 생각했다면 E교사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주는 따뜻한 교사'로서의 인성적 측면에 중심을 두었다.

> "학창시절에 도서관에 자주 가기도 했었고 저 나름대로 사서 선생님하고 친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공무직 사서인 것 같은데 학교도서관에 가면 잘해주셨거든요." (D교사)

D교사 역시 성장 과정에서 마주한 사서의 모습에서 '친하다고 생각했다', '잘해주셨다' 등 친밀함이라는 이상적인 사서교사의 특성을 구성하고 있었다. 저경력 사서교사들 성장과정에서 만난 대부분의 사서교사(또는 사서)나 교사가 따뜻하고 학생들에게 온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사서교사에 대한 지식을 이미지 수준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미지는 자신이 가진 경험, 교육 이론, 학교 문화 등을 고려하여 교육 목적을 직관적으로 알게 하는 심상이며(홍미화 2005), 이렇게 사서교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추후 사서교사의 실천적 지식을 조직하는 큰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이 지낸 학창시절에 전국에 배치된 사서교사의 수는 극히 적었기에 사서교사와 교육적 경험을 해보지 않고 직업으로서 사서교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다.

> "고등학교 때까지 사서(교육공무직)도 없었고, 사서교사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서교사를 아예 경험해보

www.kci.go.kr

> 지 못했고, 국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도서관도 항상 열려 있지 않아서 사서교사 자체가 있는지를 몰랐어요.…(중략)… 저는 어릴 때 책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웠고, 어려워했던 경험이 있어서 같은 경험을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B교사)

> “어렸을 때는 사실 사서교사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어요. 고 3때 문헌정보학과를 알게 되었고, 성적에 맞춰서 지원을 했는데 그 때도 사서교사는 몰랐어요. …(중략)… 사실 제가 학창시절에 사서교사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몰라서… 어떤 모습이 바람직하고 이상적인지 대학 진학 전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F교사)

B교사와 F교사 모두 대학 진학 전까지는 사서교사라는 존재를 알 수 없었고, 이상적인 사서교사의 모습 역시 다른 사서교사의 모습을 통해 구성하기 어려웠다. 대신, B교사의 경우 성장 과정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책에 대해 어려워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나. 도서관활용수업에 대한 지식: 희미한 기억 속의 도서관 수업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학창시절 사서교사의 도서관활용수업을 경험하지 못하여, 성장 과정에서 도서관활용수업에 대한 관련 지식을 쌓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도서관활용수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들도 사서교사가 독립적으로 진행한 도서관활용수업의 내용이나 방법을 제대로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단순히 도서관 수업, 독서 수업 등으로 명칭 정도를 기억하고 있었으며, 책을 읽거나 자료를 찾는 등의 활동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교과교사가 학교도서관의 장소, 자료, 기기 등을 이용하여 기초 수준의 도서관활용수업을 진행한 경험을 가진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 “고등학교 때 만난 사서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들하고 잘 지내셨거든요. 도서관 행사하면 선생님들, 특히 젊은 선생님들 함께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협력수업은 보지 못했구요. 저희는 그냥 도서관수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선생님 혼자서 도서관에서 학생들하고 도서관에서 자료 찾고, 책 읽고 하는 수업을 진행하셨어요. 그게 도서관활용수업이긴 한데 정보활용교육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서교사 단독으로 진행한 책 읽기 수업에 더 가깝지 않나 싶어요.” (A교사)

A교사는 도서관에서 자료를 활용하고 독서활동을 진행하는 등의 수업을 하였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단 현재 사서교사로서 자신이 판단하는 바와 비교하여, 해당 수업이 도서관활용수업이긴 하나 엄밀하게 ‘책 읽기 수업에 더 가깝다’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www.kci.go.kr

"사서 선생님이 저희 1학년 때 창체 시간에 도서관에서 수업하셨거든요. …(중략)… 그때 학교도서관이 인테리어를 새로 했고 사서 선생님이 도서관에서 뭘 읽고 쓰는 수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방과 후 논술 수업도 하셨고 주말에 토론 수업도 하셨어요. 독서 수업이었나? 수업한 기억은 있는데 무슨 수업을 하셨는지는 기억은 잘 안 나요." (C교사)

"교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으로 이동해서 수업하다 보니까 도서관활용수업이라고 명확히 인식하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하는 특별한 수업같은 느낌.?…(중략)… 그때는 '소논문'이라는 것도 생소했는데, 사서 선생님이 단순히 독서와 관련된 수업뿐만 아니라 이런 수업도 담당하신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E교사)

C교사와 E교사의 경우, 수업의 장소를 도서관이라는 장소로 이동하여 책 읽기 외 글쓰기 수업 등 다양한 수업을 한 경험을 떠올리고 있었다. 수업 내용까지 자세히는 기억하지 못하나 독서 외에 다른 수업 역시 사서교사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도서관활용수업에 다양한 수업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사례는 아래와 같이 D교사의 언급에서도 드러난다.

"고등학생 때 정치시간에 도서관에서 찬반토론수업을 진행했었어요. 토론 자체는 도서관 기기를 활용한 정도였지만(도서관이 그런 수업을 하기에 좋게끔 인테리어 되어 있었거든요. 그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았던 기억도 얼핏 있네요. …(중략)… 이리저리 자료를 찾아보며 친구들과 계속 논의하는 시간도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D교사)

앞서 다른 교사들도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졌다고 기억한 것처럼 D교사 역시 도서관에서 실시한 찬반 토론수업이 '기기를 활용한 정도'나 '자료를 찾았던' 정도로 단순하게 이루어졌으나, 여러 자료를 찾으며 논의하는 시간이 의미 있었다고 평가하는 등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의 중요성까지 성장 과정에서 직접 알게 되었다고 논하였다.

학창시절 도서관활용수업에 대해 언급한 상기 내용들을 토대로 볼 때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도서관활용수업에 대해 상세하게 기억을 떠올리지는 못하였다. 기억 산출이 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도서관활용수업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역,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근무하는 사서교사의 관점에 따라 우선시 되는 내용을 수업하여 서로 다른 교수·학습 내용에 대한 지식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서관활용수업의 경험은 참가자들이 '도서관활용수업은 유용하다.', '도서관활용수업은 필요하다.'는 이미지를 갖는 것보다는 '도서관이라는 장소에서 수업을 할 수 있다.' 정도의 수준으로 인식하게 한 것으

www.kci.go.kr

로 판단된다.

사서교사의 수업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은 '사서교사의 책을 이용한 수업과 관련된 다양한 학습을 경험한 지식을 어렴풋이 기억하는 것', '도서관이라는 장소에서 수업을 해 보았다는 것' 정도의 단편적인 기억을 통해 현재 시점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도서관활용수업의 개념을 비교·대조하며 '도서관활용수업의 일종이나 책읽기 수업에 가까운' 또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진행한다'는 점에서 도서관활용수업과 유사하다는 판단을 내리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2. 예비교원양성과정에서 만들어진 지식

가. 사서교사에 대한 지식: 학생과 교사를 교육으로 이끄는 리더십 있는 교사

미국 학교도서관 기준인 「National School Library Standards for Learners, School Librarians, and School Libraries(2018)」에는 사서교사의 5대 역할과 기능으로 리더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사서교사가 가진 리더의 역할은 교육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학교도서관을 기반으로 교육적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여 다 함께 성공하도록 돕는 자질이다(송기호 2019, 327). 연구 참여자들은 사서교사가 학생과 교사와의 소통, 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학교도서관 프로그램과 도서관활용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여기서 '리더십이 있는 사서교사'란 이미지는 대학의 수업을 통해 이론적이며 추상적으로 접한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 "일하기 전에 실제 현장에서 봤던 약간 역할 모델? 같은 느낌이랑 대학에서 배웠던 내용은 많이 달랐어요. 대학에서 배운 건 현실적이라기보다 말 그대로 교과서적이고 이론적이어서…. 대학에 가서 독서지도론, 도서관경영론 시간에 '사서교사가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겪었던 사서선생님이랑 많이 유사해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은 늘 하고 있어요." (A교사)

> "사서교사가 도서관활용수업과 협력수업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는 건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 개론서를 읽으면서 이론적으로 접한 것 같아요."(B교사)

> "저는 사서교사가 자료제공을 하는 것을 떠나서 사서교사가 리더십을 갖고 교과교사와 협력수업을 체계적으로 하고 수업을 통해 다양한 리터러시를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정보활용교육론과 학교도서관운영론을 배우면서 (사서교사의 리더십에 대한 교사상을) 갖게 된 건데 실제로 그렇게 교과교사와 함께 수업을 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C교사)

세 교사 모두 사서교사가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하고,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www.kci.go.kr

대신 A교사의 경우 자신의 학창시절 사서교사와 수업한 경험을 결부하여 '리더십 있는 사서교사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 "대학에서 수업을 배우면서 협력수업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게 가능한가 보구나 생각하면서 그런 걸 잘하는 게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학창시절이나 교생실습에서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협력을 본 적이 없어서 실제로 현장에 나오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D교사)

연구참여자들은 예비교원양성과정에서 학교도서관을 학교의 중심교육기관으로 설정하고 학생과 교사에 협력과 융합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수 있는 리더로서 사서교사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저경력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 예비교원 양성과정에서는 수업 실천에 있어 교사가 어떻게 상황을 대처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실천적 지식이나 '교과교사와 협력수업을 하는데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와 그 유용성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원리 수준의 지식을 내면화할 수 없었고, '교과교사와 협력수업을 하는데 사서교사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정도의 이미지 수준으로 지식을 구성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리더십을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었다.

나. 도서관활용수업에 대한 지식: 실습 과정의 차이와 수업 실천의 격차

예비교원양성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도서관활용수업에 대해 서로 다른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마다 도서관활용수업이나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교육 유무에 따라 지식의 구성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도서관활용수업, 정보활용교육 등의 과목에서 도서관활용수업에 대한 방법과 이론을 배운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활동을 진행하는데 있어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고 있었다.

> "지도안 짜는 방법을 대학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실습 나갔을 때 교육공학 수업에서 ADDIE나 ASSURE을 적용해서 도서관활용수업을 진행했어요." (B교사)

> "정보활용교육론 수업 때 들었던 도서관활용수업이나 도서관협력수업 같은 내용이 기억에 남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도서관활용수업에 대해 열려 있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선생님들)이 계시고,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도서관활용수업이나 협력수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도움이 되어요." (C교사)

www.kci.go.kr

"교생실습을 나가기 전에 했던 수업지도안 짜고 수업 실연을 했던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됐어요. …(중략)… 특히 대학 때 교수님이 주제에 대한 책 쓰기 과제를 내주셨는데 할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고 왜해야 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학교에 오니까 책 쓰기 사업을 하더라고요. 방법이나 내용을 아니까 바로 적용했거든요.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D교사)

"도서관활용수업이나 협력 수업에 대해 대학 때 읽은 개론서에서 이론적으로 접했던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모형을 주고 방법을 주고 토론 수업이라던가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배워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E교사)

C교사와 E교사의 경우에서처럼, 예비교원양성과정에서 도서관활용수업에 대한 강좌를 수강한 연구 참여자들은 교수·학습과 관련된 수업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지식을 쌓고 있었다. 그 외에도 실제 수업에 대한 강의를 수강한 연구 참여자들은 학습자분석, 수업 설계,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을 규칙의 수준의 지식을 구조화할 수 있었으며, '대학에서 배운 도서관활용수업에 대한 강의는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하기에 유용하다.'는 실천과 이론이 연결된 원리(principle)의 수준에서 재구조화 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도서관활용수업과 관련된 과목을 수강하지 못한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에게 가장 요구되는 교육 활동에 대한 지식 구성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는 교육적인 면에 대한 수업을 거의 듣지 못했어요. 사실 도서관활용수업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연수에 따라다니면서 사서교사의 협력 수업에 대한 걸 배우고 있지만 제 상황을 볼 때 수업을 제안하는 문턱이 너무 높고 힘들어요." (A교사)

"대학에서 매체활용교육론에서 매체에 대한 특성을 배웠고 특별히 수업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중략)… 발령받은 후에 신규교사 연수가 있었는데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현실을 몰랐던 거죠." (F교사)

연구 참여자들은 예비교원양성과정 중에 진행된 교육실습을 통해 도서관활용수업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개발해 나갈 수 있었다. 실습 학교에서 사서교사의 수업 비중이 많지 않아 교육실습생들의 수업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적은 수업 활동에서도 불구하고 교수·학습 과정안의 작성 경험, 타 교과 선생님의 수업 실현 경험, 실제 수업을 통한 경험이 지식 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www.kci.go.kr

"수업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KWL을 적용하여 수업을 준비했었어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KWL을 적용해서 정보탐색 수업을 해보고, 도서부 학생들하고도 독서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수업 준비를 했거든요.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좋은 경험 같아요." (A교사)

"국어 선생님의 수업이 인상 깊어요. 학생들 흥미 유발하고, 수업 주제 알려주고, 그런 일련의 과정도 매끄럽게 적용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많이 배웠어요." (B교사)

"교생실습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했어요. 전에 프로젝트와 관련된 책도 보고했는데 낯설더라고요. 지도안 작성하면서 큰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특히 시간 분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제 지도안을 작성하고 수업을 한 번씩 하면서 지도교사가 피드백을 자세히 주시고 하니까 좋았어요. 그리고 지도교사가 수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배우기 어려운 수업도 쉽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구요." (C교사)

이와 같이 교육실습 중에 교육 활동을 실천한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 전략, 동기유발, 시간 배분뿐 만 아니라 학생의 입장에서 수업을 구성하는 등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형성해 나갔다. 또한 정보검색을 위한 KWL전략 적용, 학생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한 위한 수업 준비 등을 통해 수업에 대한 지식을 구조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몇몇 교사의 경우 실습 당시 사서교사가 없어 도서관활용수업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도서관활용수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업 활동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었다.

"교육공무직 사서가 배치된 학교에 실습을 나가게 됐는데요. DLS사용법, 라벨작업이라던지… 뭐를 따로 가르쳐주시지는 않았어요. 수업 실연할 때는 타 교과 선생님에게 (수업 지도안) 파일을 받아서 청구기호 보는 법, 도서관이용교육, 동화 내용 각색과 관련한 독서 지도 수업을 했어요. 너무 교육 활동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F교사)

3. 현장에서 만들어진 지식

가. 사서교사에 대한 지식: 다시 만들어가는 수업 전문가로서의 모습

앞서 살펴본 면담 내용에서 자주 드러나듯, 연구 참여자들은 임용이 된 이후에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면서 사서교사로서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주로 타 학교에 근무하는 고경력 사서교사 또는 수업에 전문성을 나타내는 사서교사를 통해 교육전문가인 사서교사로서 자기 스스로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새로운 지식을

www.kci.go.kr

구성하며, 교내의 수업 혁신을 주도하는 교사를 통해 사서교사로서 갖춰야 할 리더십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실천적 지식은 주로 임용 이후 경험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 "도서관이나 책을 이용하여 수업하는 수준으로 수업을 진행해요. (도서관활용)수업을 잘하려고 연수에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연수나 사례를 보면 솔직히 제가 사서의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혼란스러워요. 그래도 사서교사의 협력수업, 융합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들로부터 수업(연수)을 받으면서 나도 저렇게 하는 수업을 잘하는 사서교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요."(A교사)

>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갭이 큰 것 같아요. 아직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는 건 자료 찾는 것, 책 추천해주는 것이 더 큰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사서선생님들 보면서 협력수업이나 리터러시(정보활용교육)를 하는 게 사서교사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B교사)

두 교사 모두 현재 자신의 '자료를 찾고 책을 추천해주는 사서의 역할을 더 많이 하는' 모습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도서관활용수업을 통해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서교사상을 내면화한 것으로 보인다. A교사와 B교사 모두 도서관활용수업, 특히 협력수업을 잘 하는 사서교사가 되고 싶다는 이상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이상을 실천하기에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판단하에 여러 방법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 사서교사의 모습인 '수업 전문가'로서 자신을 다듬어나가고 있었다.

수업을 잘 하는 사서교사상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구현하는 방법적 측면에서 자신보다 경험이 많은 타 사서교사와의 교류와 연수를 활용하기도 하였지만, 수업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는 교내 수석교사와도 협력하는 과정에서 리더십 있는 사서교사가 되고자 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 "수석 선생님이 협력수업을 먼저 제안하셨고 다른 교과 선생님과 협력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수업에서 끌려 다닌걸 느꼈어요. 수업을 마친 후에도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협력 수업할 때 남들에게 따라다니지 않기 위해서 수업에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중략)… 수업에 대한 걸 알기 위해서 지역 사서교사 연수에 참여해서 선배 사서 선생님들의 수업 관련 연수를 듣거나 사적인 자리에서 수업에 대해 질문하면 알려주세요." (E교사)

> "작년에 수석 선생님과 (협력)수업을 했거든요. 수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모습이 대단하기도 했고,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해서 올해는 제가 다른 선생님께 수업을 같이 하자고 물꼬를 던져봤어요.…(중략)… 지역사서교사 단톡방과 같은 데서 (도서관)활용수업하면 유명하신 분들의 수업자료를 찾아서 수업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D교사)

www.kci.go.kr

D와 E교사의 경우, 타 학교에 근무하는 사서교사들의 수업자료를 찾거나 사서교사 모임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실제 교내 수석교사와 함께 실천하며 협력수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서교사의 리더십을 실천으로까지 이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실천적 지식의 실현 과정에서 수석교사와의 협력은 F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 "사서교사가 독서동아리를 이끌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필요하겠단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 학교 안에서 전학공(전문적학습공동체)으로 교사 독서동아리를 운영하면서 리더십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석 선생님께서 전학공 운영계획 짜는 거부터 날짜 정하는 것이나 주제 책 선정하는 것 등 많은 도움과 영향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사서교사로서 양서의 주제 책을 정하고 독서토론 때 서로의 생각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절한 유도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F교사)

나. 도서관활용수업에 대한 지식: 교사와 학생을 고려한 사서교사만의 수업 방법 찾기

연구 참여자들은 예비교원양성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자신이 앞으로 진행할 도서관활용수업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쌓아가고 있었으며 대학에서 배운 이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상황을 토대로 교사, 학생을 고려한 자신만의 도서관활용수업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 "도서관협력수업은 아직 없어요. 근데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거나 한 학기 한 권읽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각 교과 상황에 맞게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수업을 하고 싶은데 아직은 어려워요. …(중략)… 사서교사 협의회에서 연수에 참여하거나 동료 사서 선생님을 통해서 도서관활용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배워본 적이 있어요. 근데 초등은 거의 없어서 초등학교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배워보고 싶어요." (A교사)

> "그림책 읽기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책을 좋아하도록, 흥미를 갖도록 목표를 두었고요. 학교에 창체 시간에 하다 보니까 주제를 정해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감기와 환경 수업으로 정했어요. 그림책을 읽고 학생들하고 생각을 나누는 구도로 수업을 진행했어요. 함께 읽으면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는데 혼자 하라면(책을 읽게 하면) 흥미를 잃을 것 같았어요. 학생들이 그림책을 읽어주니까 웃고 울고 감정적으로도 즐거워하는 게 보여서 저도 재밌게 수업을 했었어요. …(중략)… 1학년 때 그림책으로 시작해서 6학년쯤 되면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학생이 분석적으로 글을 써서 자기만의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B교사)

> "도서관활용수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 선생님은 성교육 단원을 도서관을 활용하여 저랑 협력수업을 하고 싶어 하시고요. 근데 제가 협력 수업은 배우긴 했는데 잘 몰라서 성과 관련된 자료 검색하는

www.kci.go.kr

방법을 돕는 정도로 수업을 진행했어요." (C교사)

"작년에 교과 선생님과 융합수업 형태로 수업을 진행했어요. 그전에는 수업을 같이하자고 하시는 선생님에게 끌려서 어영부영 끌려갔는데 (공동)평가까지는 아니지만 패스파인더 만들기 같은 거 적용해서 교과 수업을 지원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도서관활용수업 흉내를 낸 것 같아요. …(중략)… 사서교사 연구회를 진행하면서 연수도 진행했는데 그 주제가 정보 미디어 리터러시에요. 그 연수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 이런게 우리에게 필요하구나.'를 실제로 알게 되었어요." (D교사)

"평소에 협력 수업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을 찾아야 했어요. 아무래도 (발령)동기 선생님들이 젊어서 그런지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STEAM 융합 수업을 진행했어요. 13차시 수업을 진행했는데 사서교사가 협력수업을 하면 리드를 해야 한다고 해서 열심히 앞장서서 했어요." (E교사)

연구 참여자들은 교과교사와 협력을 통한 수업 진행에 중점을 두고 도서관활용수업을 하고자 고민하고 노력하였다. 특히 C, D, E 교사의 경우 도서관협력수업에 대한 정확한 절차와 원리에 대한 지식 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을 보여주었지만, 교과교사와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협력적 성찰 과정과 실제 경험을 통해 수업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에 따라다니며 사서교사의 협력 수업, 융합수업에 대한 걸 배우면서 '나도 저런 교사가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들이나 전담 선생님들과 교육 활동하는 데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심체 역할을 실제로 하기 너무 어려워요. 일단 초등은 각 반 선생님이 모든 수업을 다 하셔서 제가 수업을 하자고 제안하는 문턱이 너무 높고 힘들어요." (A교사)

연구 참여자 A는 담임교사와의 도서관협력수업 방법이 중・고등학교와는 구분되는 것 같다며 이론적으로 배운 협력수업에 대한 지식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학교급에 따라 협력수업이 달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실천적 지식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각 연구 참여자들은 임용 이후 한 학기 한 권 읽기, STEAM 융합 교육, 토론 교육 등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적 상황을 토대로 책 읽어주기, 교과에 맞는 패스파인더 등과 같이 자신만의 교수・학습 방법 지식을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발령 이후 지역의 사서교사연구회 또는 도서관활용수업에 대한 연수를 통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지식을 얻기도 하였다.

www.kci.go.kr

Ⅴ. 결론 및 제언

명제적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지식은 개별 교사의 습득, 내면화, 환경과의 상호작용 등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개별적이고 특수한 지식으로 변화해 나간다. 이는 교사들이 교육과 관련된 자신만의 실천적 지식을 쌓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에 대한 분석은 교사가 되기 전의 예비교원 양성과정이나 교원 연수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높이 쌓고, 학교 현장에서 성공적인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천적 지식이라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저경력 사서교사들이 사서교사에 대한 자신의 상과 도서관활용수업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쌓아가는지 과정을 살펴보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6명의 사서교사의 실천적 지식은 교사 개인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개별적이고 특수한 지식이었으며, 이들의 실천적 지식의 구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이상적인 교사상에 대한 실천적 지식은 대부분 '학생과 교사를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으로 이끌어 가는 리더십이 있는 교사'였다. 이러한 교사상은 성장 과정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었으며, 연구 참여 교사들은 각기 다른 성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난 사서교사나 사서, 교사들을 통해 따뜻하고 소통하는 사서교사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몇몇 참여자의 경우 사서교사나 사서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성장 과정에서 독서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책을 어려워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교사의 모습을 세우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은 학창 시절을 통해 막연한 사서교사의 모습을 갖고 대학에 입학하여 양성과정의 수업을 통해 리더십이 있는 교사에 대한 이론을 접하게 되었다. 학교 현장에 발령받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다른 사서교사, 수석교사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교수·학습 방법과 리더십 실천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면서 수업 전문가로서 자신의 모습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둘째, 사서교사로서 교사 자신에 대한 실천적 지식은 예비교원양성과정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형성되었으며 학교 현장에 발령받으며 사서교사의 교사상(이미지)에 대해 반성적 성찰이 일어나는 단계가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비교원양성과정에서 사서교사는 리더십을 갖고 도서관활용수업, 도서관협력수업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로서의 모습을 학습하고 실제 현장에 나와서도 리더십 있는 교사가 바람직한 사서교사라고 더욱 확고히 생각하게 되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자료를 찾고 책을 추천해주는 자료 제공자로서의 사서의 모습이라는 갈등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 상황은 이상적인 사서교사의 이미지가 실제 자신이 처한 학교 환경과 불일치하며 발생하는 것으로 깊은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며 그동안의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을 하게 한다. 이러한 교사로서의 자신에 대한 지식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이 깊어지면 학교도서관을 통한 사서교사의 교육 활동을 수행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이러한 성찰을 통해

www.kci.go.kr

교육 전문가로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세우고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성공적인 도서관활용수업에 대한 실천적 지식은 연구 참여자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도서관협력수업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수업 방법을 배우고 적용하고자 하였다. 특히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실천적 지식의 구성은 주로 예비교원양성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예비교원양성과정에서 도서관활용수업의 방법과 내용을 배운 경험은 교육실습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지식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단순한 이미지의 수준이 아닌 원리와 규칙의 수준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넷째, 도서관활용수업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지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실천적 지식의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비교원양성과정과 교육실습활동에서 쌓아 올린 지식의 내용과 깊이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교원양성과정에서 도서관활용수업에 대한 지식을 쌓고, 교육실습활동을 통해 도서관활용수업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노력, 열정과 타인의 도움을 토대로 도서관활용수업과 도서관협력수업에 참여하여 자신만의 실천적 지식을 쌓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도서관활용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예비교원양성과정에서 수강하거나 경험하지 못하거나 사서교사의 교육적 활동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참여자들은 교수・학습에 대한 열의는 갖고 있지만, 교사로서 수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을 쌓아가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6명의 저경력 사서교사의 학창 시절에서부터 현장까지 사서교사와 도서관활용수업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실천적인 지식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사서교사가 되기 전후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정립해 나가고 도서관활용수업에 대한 교수・학습 내용에 대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 없다면 사서교사의 복잡한 실천적 지식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사서교사들은 도서관활용수업으로 학교 구성원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있는 교사가 되고자 노력하며, 도서관협력수업을 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연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실천적 지식의 구성 과정을 분석해 보았을 때, 지식의 구성 과정은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공통적으로 도서관활용수업, 특히 협력수업을 중요시하는 실천적 지식을 구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상적인 교사상과 수업을 실제 현장에서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특히 사서교사 양성 과정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도서관활용수업, 정보활용교육 등 사서교사 양성 교육과정의 체계화, 학교도서관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에 초점을 둔 교육실습 프로그램 마련 등 현재 예비교원양성과정과 교육실습활동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빠른 시간 내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도서관을 이용한 교육의 전문가인 사서교사의 실천적 지식을 이해하고 사서교사와 도서관활용수업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사서교사들의 도서관활용수업 읽기와 분석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www.kci.go.kr

참 고 문 헌

기민진, 송기호. 2013. 사서교사와 국어교사의 협동수업이 중학생의 학습흥미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2): 123-142.

김성준. 2009. 사서교사의 전문성 인식에 관한 연구.『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3): 239-270.

김영란. 2019. 고등학교 국어교사의 책읽기 수업에 관한 실천적 지식 탐구.『청람어문교육』, 71: 279-302.

김자영, 김정효. 2003. 교사의 실천적 지식에 대한 이론적 탐색.『한국교원교육연구』, 20(2): 77-96.

노경주. 2009. 교사의 개인적 실제적 이론 구성과 교사 교육의 과제.『초등교육연구』, 22(2): 335-361.

노경주. 2018. 교사의 개인적 실제적 이론의 변화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예비교사에서 교직 경력 5년 교사로.『한국교원교육연구』, 35(4): 283-312.

박주현, 이명규. 2015. 독서 태도 모델 개발 연구.『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4): 271-297.

서윤희. 2015. 모의수업 과정에 나타난 예비유아교사의 실천적 지식 분석.『열린유아교육연구』, 20(3): 19-47.

서행민, 이병기. 2015. 정보활동을 통한 미래자서전 쓰기가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4): 599-620.

선민희, 안경자. 2019. 초등영어 어휘지도에 관한 세교사의 실천적 지식 및 수업실행.『영어학』, 19(3): 560-586.

소병문, 송기호. 2020. 교과 연계를 위한 독서 전략의 내용 체계와 적용에 관한 연구.『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1): 281-303.

오지민, 김기영. 2018. 사서교사의 저작권 수업 방식이 고등학생의 저작권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정보관리학회지』, 35(4): 195-222.

윤지수, 임경원. 2020. POE 수업모형을 적용한 과학 수업에서 얻게 된 중학교 특수학급 교사의 실천적 지식.『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3(2): 1-30.

이승민. 2020.『통합정보기술수용모형을 적용한 교과교사의 도서관활용수업 수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교육학과.

정종기. 2009. 인체수행공학을 적용한 도서관활용수업의 저해요인 분석 연구.『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1): 433-449.

조미아. 2014. PBL을 적용한 사서교사와 중국어 교과교사의 협력수업 사례 연구.『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2): 65-88.

홍미화. 2005. 교사의 실천적 지식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사회과 수업을 중심으로.『사회과교육』. 44(1): 101-124.

www.kci.go.kr

황혜란. 2010. 홀대받는 업무의 전문성-소외되기 쉬운 업무에서 전문성 찾기. 『2010년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학술발표회』. 2010년 6월. 부산: 부산대학교, 99-108.

AASL. 2010. *Sample Job Description Title: School Librarian.* 〈http://www.ala.org/aasl/sites/ ala.org.aasl/files/content/guidelinesandstandards/learning4life/resources/sample_job_description_L4L.pdf〉 [cited 2020. 9. 2].

Elbaz, F. 1981. "The Teacher's Practical Knowledge: Report of a Case Study." *Curriculum Inquiry*, 11(1): 43-71.

IFLA. 2015. *School Library Guidelines*. 2nd. edition. Netherlands: IFLA.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o, Miah. 2014. "A Case Study of Collaborative Classes between a Teacher Librarian and a Chinese Language Teacher Applying Problem-based Learning: With a Main Focus on Students' Degree of Interest in Learning at S High Schoo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2): 65-88.

Hong, Mi-Hwa. 2005. "Theoretical Study of Social Studies Teacher's Practical Knowledge: Focused on the Social Studies Instruction." *Social Studies Education*, 44(1): 101-124.

Hwang, Hye-Ran. 2010. "Expertise in Neglected Tasks: Finding Expertise in Tasks." *Proceeding of Summer Conference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10: 99-108.

Jung, Jong-Kee. 2009. "Analysis on Library-Aided Instruction's Obstacle Factors Based on Human Performance Technology Model."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1): 433-449.

Ki, Min-Jin and Gi-Ho Song. 2013. "A Study on the Effect of Collaborative Instruction Between a Teacher Librarian and a Korean Language Teacher on a Middle School Student's Learning Interest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2): 123-142.

Kim, Ja Young and Jung Hyo Kim. 2003. "Theoretical Study of Teacher's Practical Knowledge."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0(2): 77-96.

Kim, Sung Jun. 2009. "A Study on Korean Teacher Librarians' Perception of Expertis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3): 239-270.

Kim, Youngran. 2019. "A Study of one High School Teacher's Practical Knowledge of

www.kci.go.kr

Book Discussion Lessons." *Jounal of CheongRam Korean Language Education*, 71: 279-302.

Lee, Seung-Min. 2020. *A Study on the Activation Strategies for Library-based Instruction Applying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Doctoral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Kongju University.

Oh, Jimin and Giyeong Kim. 2018. "A Study on the Effects of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by Teacher Librarian on Knowledge and Attitude of High School Students in Copyright Educ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Information Management*, 35(4): 195-222.

Park, Joo-Hyeon and Mying-Gyu Lee. 201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Model for Attitude toward Reading."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4): 271-297.

Roh, Kyungjoo. 2009. "Teacher Personal Practical Theorizing and Teacher Education."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2(2): 335-361.

Roh, Kyungjoo. 2018.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Change of Teachers' Personal Practical Theories: From Pre-service Teachers to 5-year-Experienced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35(4): 283-312.

Seo, Haeng-Min and Byung-Ki Lee. 2015. "The Effects of Writing Future Autobiography Using Information Activities on High School Student's Ego-ident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4): 599-620.

Seo, Yoon Hee. 2015. "An Anaysi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Practical Knowledge Through Simulated Instructio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e Early Childhood Education*, 20(3): 19-47.

So, Byoung-Moon and Gi-Ho Song. 2020. "A Study on the System of Reading Strategy Contents for a Subject Linkage and it's Application to the Content Subjec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1): 281-303.

Sun, MinHee and Kyungja Ahn. 2019. "Three Elementary English Teachers' Practical Knowledge and Practices in Teaching Vocabulary."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9(3): 560-586.

Yun, Ji-Su and Kyoung-Won Lim. 2020. "A Special Education Teacher's Practical Knowledge Acquired from Science Classes Using POE Model."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for Curriculum and Instruction*, 13(2): 1-30.

www.kci.go.kr